

인천서 터진 우승 팡파르에 원정팬·지역민 감격

17일 SSG전 정규시즌 우승 확정
전국서 팬 몰려... “감격·행복 느껴”
무더위 날린 시원한 한가위 선물
“정ちに 염증 느끼는데 큰 위안”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7년 만의 정규 시즌 우승' 소식은 지역민들과 KIA 팬들에게 무더위를 날리게 하는 시원한 한가위 선물이었다. KIA의 우승을 직접 관람한 원정 팬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TV 중계를 통해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은 기쁨과 행복감을 만끽했다.

KIA는 지난 17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SSG랜더스와 맞대결에서 0-2로 패했지만, 2위 삼성라이온즈가 같은 시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경기에서 4-8로 지며 마지막 남아 있던 매직 넘버 '1'을 지워내고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 17일 랜더스필드는 KIA의 정규 시즌 우승 확정 순간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 찾은 원정 팬들로 북적였다. 이날 KIA의 아쉬운 패배에도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되자 원정 팬들은 이병호 감독과 선수들을 연호하는 함성으로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서울에서 추석을 맞아 본가인 나주로



7년 만에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17일 인천 미추홀구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 리그 SSG랜더스와의 경기를 끝내고 정규 시즌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내려가는 걸 포기하고 경기장을 찾은 이정민(34)씨는 “3인 가족이 정말 어렵게 티켓을 구해서 왔는데 오늘 경기에서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 짓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한 달 후에 열리는 한국시리즈도 꼭 티켓을 구해서 응원하러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에서 인천까지 먼 원정길을 온 팬들도 정규 시즌 우승 확정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여자친구와 함

께 인천을 찾은 김지훈(28)씨는 “6시간 넘게 걸려서 온 보람이 있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준 타이거즈 정말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이영기(52)씨 역시 “아들들과 4인 가족이 광주에서 올라와 수원에서 경기를 보고 인천으로 넘어왔다. 연이를 폭염 속에 관중석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정규 시즌 우승을 현장에서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며 “은 가족이 정규 시

즌 우승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누구보다 타이거즈를 사랑한다고 밝힌 박영주(41)씨는 “추석 연휴에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 지을 것을 예상하고 수원부터 인천, 잠실까지 세 경기 티켓을 모두 구해놓고 3박 4일 일정으로 수도권에 올라왔다”면서 “7년 전 추석 연휴에 수원에서 정규 시

즌 우승을 확정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도 경기장에서 우승의 순간을 함께 했는데 7년 만에 인천에서 다시 한번 기쁨을 느끼게 돼 정말 영광이다”고 감회를 밝혔다.

KIA의 정규 시즌 우승 확정 소식은 지역민들에게도 큰 기쁨을 줬다.

추석을 맞아 화순에 갔다가 광주로 귀경길 중 KIA의 정규 시즌 우승 확정 소식을 접한 정양미(56)씨는 “코치에서 감독으로 선임된 첫 해 큰 시행착오 없이 우승까지 이끌어 준 이병호 감독을 응원하고 싶다”며 “정ちに 염증을 느끼고 각종 사건 사고로 심란할 때 KIA가 잘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항상 큰 위안이 되고 삶의 행복이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 야구를 보기 시작한 김민희(22)씨는 “고향이 광양이라 자연스럽게 KIA를 응원하게 됐는데 경기 외적으로도 ‘도영아 니따시 살아야’, ‘빼빼빼기 춤’ 등 유행어와 사회적 현상을 일으켜 평소 야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화젯거리가 많았다”며 “친구들 말로는 KIA가 한국시리즈에 11번 진출해 11번 모두 우승했다고 한다. 기록은 언젠가 깨지겠지만, 올해는 절대 깨질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호언했다.

한편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된 KIA 타이거즈는 잔여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시리즈에 직행, 열두 번째 정상을 향한 마지막 포효를 힘껏 내지르기 위한 여열에 들어간다.

인천=한규빈·박찬 기자

광주·전남 추석 연휴 사건·사고 속출

광주서 분신·흥기 사망 잇따라
음주·추돌 교통사고... 9명 부상

이번 추석 명절 기간 광주·전남에서는 각종 사건·사고가 속출했다.

광주 도심에서는 분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귀성길·귀경길 도로에서는 음주 운전, 추돌사고가 끊임없었다.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1시10분께 광주 북구 유동사거리 인근의 인도에서

60대 남성 A씨의 몸에 불이 붙었다.

진화 작업을 마친 소방 당국이 A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A씨는 대전 소재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성묘를 가던 중 가족들과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오후 3시14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B씨

가 흥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평소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B씨는 지난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자택을 찾았고, 가족들에게 병원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흥기가 함께 발견된 점,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휴 기간 귀성길·귀경길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7시55분께 광주 서구 마북동의 한 삼거리에서 30대

C씨가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던 중 가로등과 자전거 보관함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C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에서는 같은 날 4중 추돌 사고와 3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17일 오전 9시40분께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원터덕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D(57)씨가 몰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충격 여파로 승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앞에 있던 또 다른 SUV를 들이받

았고, 해당 SUV가 앞 승용차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를 목격한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2대 후미를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차량 7대에는 총 17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부상을 입은 D씨 등 8명이 소방 당국에 의해 광주와 전북 소재 병원으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시 D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수습으로 인해 이 일대에서 1시간 30분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정성아·윤준명 기자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틀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